

(응-.....)

밤의 길거리에는 욕망의 냄새가 싹 향수의 그것처럼 충만하다.

헤르타는 분수의 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를 짜면 허벅지의 하얀 피부가 밤에 노출된다.

무기 같은 것은 허리에도 등에도 보이지 않는다.

무방비에 얇은 천을 두른 만큼의, 세간 모르고 놀아 좋아하는 젊은 여자——.

그렇게 보이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최고의 무장이었다.

(..... 어)

이윽고 시선이 멈춘다.

골목의 그늘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상당한 외투와 회의 팽창으로부터, 적당히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남자의 눈은 헤르타의 드러난 쇠골과 허벅지를 왕래하고 있다.

(그냥 좋은 호구입니다)

헤르타는 마음 속에서 입맛을 다시고 남자와 눈이 맞는 순간에 겨우 악한 듯 웃어 보였다.

초대받는 그대로, 남자는 발을 내디뎠다.

「요, 아가씨. 혼자?」

「응, 마침 심심하던 참이야」

헤르타는 가볍게 분수에서 뛰어 내렸다.

남자의 눈앞에서, 굳이 안정의 나쁜 착지를 보여주고 좋다.

남자가 당황해서 팔을 잡는다.

헤르타의 맨살에 뜨거운 손바닥이 닿아 남자의 목이 작게 울렸다.

"위험한구나...."

「후후, 좋은 아이가 아닐지도?」

헤르타는 남자의 가슴에 검지 손가락을 기어들여 눈동자를 능숙하게 들여다 봤다.

달콤하고 녹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더 재미있는 곳, 데려주지 않아? 뜨거워질 수 있는 곳이 좋다"

남자의 얼굴이 느슨해졌다.

먹잇감이 미끼를 문 순간의, 그 사이의 빠진 표정.

헤르타는 마음 속에서 으쓱하고 웃었다.

연기는 완벽하다.

두 사람은 인기가 없는 뒷골목에 들어갔다.

돌 다다미의 축축한 반향.

남자의 손이 헤르타의 허리를 안고, 거친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다.

헤르타는 거기에 몸을 맡기고 오히려 자신으로부터 남자의 목에 팔을 돌려 끌어들이게 했다.

"여기서 괜찮아?"

「아, 괜찮아. 최고다」

남자가 입술을 거둬하려고 얼굴을 가까이 잡은, 그 순간.

헤르타의 오른손의 소맷부리로부터, 극세의 독날이 소리도 없이 미끄러졌다.

3치수 정도의, 바늘과 같은 흉기.

남자가 그것을 알아차릴 리가 없다.

그녀는 마치 애무를 하는 자연스러운 손으로 남자의 등에 그 칼날의 끝을 닿게 했다.

"이봐"

「응, 아?」

「괴롭지 않을까?」

그렇게 속삭이는 순간에, 살짝 일찌기.

제 4 갈비뼈 사이에서 독날이 미끄러져 찢린다.

남자의 눈이 펼쳐졌다.

입술이 경련하고 뭔가를 외치려고 하지만 폐로 돌린 즉효성의 신경독은 이미 성대를 마비시킨다.

헤르타의 팔 속에서 남자의 몸이 급격히 무거워져 구자로 구부러졌다.

「시. 조용히 해?」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면서 남자의 무너지는 몸을 안고 그대로 골목의 어둠에 누웠다.

남자는 경련하면서 헤르타를 올려다보고 있다.

그 눈동자에 비치는 것은, 조금 전까지의 분방한 소녀의 웃는 얼굴이 아니고, 바닥 차게 하는 것 같은 무관심한 빛뿐이었다.

「잘 먹었어.」

헤르타는 남자의 손에 손을 뺀어 가죽 봉투를 찾아낸다.

묵직한 무게.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의 허리의 숨겨진 파우치에 던진다.

남자는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냥 골목 뒤의 대형 쓰레기다.

(어서..... 다음은, 언제일까?)

헤르타는 일어나자 독날에 부착한 소량의 피를 외측 안감으로 닦아내고 다시 소매 속으로 담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피부를 쓰다듬는다.

그녀는 다시, 도시의 소음 쪽으로 발을 돌렸다.

그 발걸음은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은, 경쾌한 것이었다.

•
•
•

(응? 어쨌든)

헤르타는 새로운 먹이를 찾아내고 있었다.

분수의 가까이를 흔들고 있는, 볼품없는 남자다.

수수한 여행 차림으로 무기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눈빛도 흐릿하고, 아무래도 주위의 공기에 익숙하지 않다.

(어쩐지, 옆에서 온 방금 여행자일까)

어쨌든 세상 모르는 호구는 편리한 상대이다.

헤르타는 언제나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자에게 다가갔다.

「이봐, 혼자? 웬지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남자는 헤르타를 보고, 조금 놀란 듯한 얼굴을 한 후, 주저하고 웃었다.

「아아, 뭐. 조금 관광으로. 이 근처에서 어딘가 좋은 곳, 가르쳐 주지 않을까?」

(관광? 응, 이런 곳에서?)

정말 세상 모르는 녀석이다.

헤르타는 마음 속에서 코를 울리고, 앞면은 달콤한 미소를 띄웠다.

「좋아. 이쪽, 조용하고 좋은 곳이니까」

남자는 「과연」이라고 중얼거리고, 솔직하게 헤르타의 뒤를 이었다.

(또, 재미있는 현지 풍속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 여행인... ... 시공간 여행자의 카가미는,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소녀의 태도에는 어딘가 영업적인 의심이 들었지만, 여행지에서의 해프닝도 또 일흥이라는 것이다.

헤르타는 골목 뒤의, 언제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장소에 도착했다.

조약돌의 젖은 냄새.

주위에 눈길은 없다.

헤르타는 남자로 돌아가자 초대하도록 목에 팔을 돌렸다.

"여기라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네"

카가미가 「그렇다」라고 응한, 그 순간에, 헤르타의 소맷부리로부터 독날이 미끄러진다.

「그래. 천천히 잠을 잘 수 있어」

빨리, 남자의 등에.

——칭.

금속음이 울리고, 손에 돌려준 충격은 고기를 찢는 느낌이 아니었다.

딱딱하다.

마치 바위나 철같다.

"에.....?"

헤르타의 몸이 굳어진다.

「과연, 그런 수법인가」

남자는 태연하고 있었고, 오히려 즐거운 듯 웃고도 있었다.

등의 옷에 미세한 찢어짐이 되어 있지만, 그 아래의 피부에는 상처 하나 붙어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해, 박수마저 한다.

만약, 헤르타가 보다 잘 주의해 보고 있었다면, 카가미가 찢어진 현지의 옷 아래에, 이계로부터 반입한 얇은 강화복을 입고 있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모, 혹시 이 녀석, 마도사!?)

헤르타는 자신의 지식의 범위에 비추어 그렇게 판단했다.

그녀와 같은 뒷골목에서 사는 자에게는 마법의 사용자 자체 거의 인연이 없는 것으로, 실제로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마도사라고 불리는 팔이 서 있는 마법사 중에는, 검이나 화살을 되돌아 보는 방어의 수 술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물은 적이 있다.

좋지 않아 실패했다.

깨달았다.

그녀는 곧 방침을 변경하고 무기를 놓으면 지면에 달라붙었다.

의지나 프라이드 수수께끼, 골목 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빌어 먹을 역에도 서지 않는 커녕 치명적인 것이다.

"히야! 미안해요! 너무 돈에 곤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디어 완고한 마음을 일으켜 버렸습니다! 마도사님, 어쩐지 용서를.....!"

뒤집은 목소리를 낸다.

눈물로 필사적으로 생명을 하는 그 모습으로는 흉격의 모습은 사라져, 그저 겁먹은 소녀로 보였다.

카가미는 재미있게,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본다.

「마도사? 하하아, 과연...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렇게 결정하자 그는 매 양에 고덕였다.

「응, 알았어. 그렇다면, 나는 별로 부상도 하지 않았고, 이제 가도 좋으니까」

그렇게 말해 손을 흔들면 담백하게 등을 돌린다.

(조용했다.....!)

헤르타는 안심하고 안심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그 가슴의 안쪽에서, 어두운 검은 감정이 소용돌이기 시작한다.

(..... 등을 향해 갔다. 지금이라면 무방비가 아닌가)

아까는 이쪽이 함정에 걸릴 생각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방호의 마법이라든지 걸고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마도사라면 갑자기 등에서 관통되면 죽을 것이다.

가령 독이 효과가 없어도, 심장을 관통하면...

(팔뚝의 마도사라는 것은, 사조 돈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팔이 서든 이런 단짠이라면 어쨌든 멀지 않고 어딘가의 누군가에게 당해 몸통이 되어, 하수예라도 던져지게 되기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죽어서 뭐가 나쁜거야?)

잘못하면 언제나 죽이고 죽을지도 모르는 곳을 괴롭히지 않고 순식간에 편하게 해 주니까, 그래도 좋을 것이다.

헤르타는 머리 속에서 빨리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자 소리도 없이 쪽 일어섰다.

그대로 스프링이 튀는 것처럼, 한발 날아가 카가미의 등에 뛰어든다.

(받았다! 죽어라!)

깨닫지 못했는지, 카가미는 되돌아보기도 하지 않았다.

그 갈비뼈 사이에서 칼날을 미끄러지게 하고, 순식간에 심장을 관철하려 하자, 헤르타는 필살의 기박을 담아 칼날을 내밀었다.

「——가!?!」

그 순간 바틴이라는 소리가 나면서 푸른 흰색 섬광이 튀어 그녀의 전신에 굉장한 충격이 달렸다.

뭐가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암전했다——.

「명거지라고 해, 배후로부터 갑자기 치고, 카아」

카가미는 조약돌에 무너져 떨어지면서 경련하고 있는 헤르타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가 진심으로 내려왔는지 어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을 돌렸을 때 슈트의 자동 반격 기능을 온으로 해 둔 것이다.

별도로 배리어인 채로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만, 두번이나 걸어 온다면, 다소는 아픈 눈에 맞추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포기할 수 없는 정신은 괜찮지만, 조금 경로를 지나치지 않을까.

뭐, 보니까 무학할 것 같은 여자이고, 그런 것은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대답은 없고, 몸의 경련이 약해져 왔기 때문에, 카가미는 굉장히 굴복하고, 그녀의 모습을 확인했다.

「...

자동 반격형 스탠건의 설정한 출력은 그녀에게는 조금 너무 강한 것 같다.

물리적인 충격이 아닌 생체전류에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심장의 고동을 포함한 신체기능을 일시적 혹은 돌이킬 수 없게 강제 정지시키거나 하는 구조의 장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원시적인 칼날 따위로 덮쳐 오는 것이니까, 가제트가 손톱을 휘두른 곰일까를 상대로 할 정도의 상정으로 반격해 버렸을까? 뭐, 아무래도 좋지만」

카가미는 그렇게 혼자 말하면서, 그런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전기 쇼크로 심장을 재동시켜 해도 좋지만, 전혀 아무런 위험도 없었다고는 해도 이 쪽을 죽이려고 한 상대방에게 거기까지 해 주는 의리는 없을 것입니다.

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여기에 방치해 떠나도 상관하지 않지만, 모처럼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 조임이 그러면 조금 맛없고...

「... ... 아, 맞다」

아까, 자신은 마도사라고 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 시체를 그렇게 사용해 하기로 하잖아.

카가미는 그렇게 결정하자마자 『간이형 인체 개조기』를 꺼내 설정을 시작했다.

「확실히, 시체를 움직여 불사자...

지금이라면 소생 처치도 시간에 맞을 것 같지만, 굳이 죽게 하고 일단 단백질의 덩어리로 해.

그것을 마법이 아닌 도구의 힘으로 다시 재작성한다.

"내가 만드는데 거니까, 너의 남은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해서 문제 없잖아...

언데드와 야는 확실히, 시체의 고기를 먹거나 피를 깎거나 하는 녀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든지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원은 무엇인가라든지, 그래서 활동의 유지에 지장은 없는가라든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있지만, 어쨌든 그것에 따라, 이 항상 먹거나 자지 않아도 좋게 해 두자.

"효율이 나쁜 유기체의 연소 반응 기관은 장식에 남겨두고, 실제의 활동 에너지원은 일회용의 양자 구동식 배터리로...

일회용이라고 해도, 인간의 생명 활동 유지 정도라면 수백년은 문제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불사자답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술자에게 절대 복종의 괴짜 같은 느낌이 되도록, 반응이라든가를 조정해, 쪽」 필요한 설정을 넣고 끝나면, 개조기의 전극을 헤르타의 이마에 밀어 넣고 「재기록」과 「동력원 변환·재활성화」의 처치를 개시했다.

「————으, 기...

어쩌면 이미 생명활동을 마쳤을 몸이 깜짝 뛰어오르고 입에서 쏘시는 듯한 목소리가 새기 시작한다.

체험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정식판에서 계속됩니다!